

순천대 경영학과 학생들이, 우즈베키스탄에 전공체험 활동

‘2022학년도 글로벌 전공체험’ 프로그램 진행

쇼핑몰·재래시장등 화장품 중심 조사및 홍보

국립 순천대는 경영학과 교수와 학생들로 이루어진 ‘K-글로벌 보부상 마케팅조사’팀이 최근 10일간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한국 화장품 시장 및 관광인프라를 조사하고 현지 방송에 출연해 대학을 알리는 전공 체험 활동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순천대 경영학과는 국제교류교육본부에서 주관하는 ‘2022학년도 글로벌 전공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신정신 교수, 박민영 조교, 재학생 6명, 대학원생 1명 등 총 9명으로 이루어진 ‘K-글로벌 보부상 마케팅조사’팀을 꾸려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다.

이들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사마리칸트, 부하라 지역의 쇼핑몰과 재래시장, 길거리의 로드샵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을 중심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시장조사를 펼치고 한국인을 위한 관광인프라를 탐색하는 한편, 우즈베키스탄 현지인을 대상으로 순천대학교를 알리는 홍보 활동에 나섰다.

조사팀은 현지 시각으로 최근 9시에 우즈베키스탄 외국어 방송 「Good morning Uzbekistan」에 깜짝 출연하기도 하였다. 생방송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심이 높은 시청자들에게 40여 분에 걸쳐 순천대의

현황과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입시제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유학을 위한 한국어 준비와 유학 생활의 팁을 전달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영학과 채수찬 학생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어떤 마케팅 전략이 사용되는지, 경영전략이 해외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피며 전공 내용을 체감할 수 있었고, 양국의 문화차이를 직접 느끼며 학과에서 함께 공부 중인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게 되었다.”며 “이번 활동으로 전공 지식과 진로를 생각하는 시야가 더욱 넓어진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활동을 이끈 경영학과 신정신 교수는 “우리 학생들이 중앙아시아의 경제허브로 주목받는 우즈베키스탄을 직접 방문하여 해외 시장의 가치와 발전 가능성을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였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이 더 확대되어 재학생들에게 폭넓은 시야를 제공해줄 수 있길 바란다.”면서 “이번 프로그램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경영학과에서는 글로벌 경

영체험 및 시장조사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속 발전시켜 재학생들의 해외시장에 대한 이해와 탐구 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장성공공도서관, 갤러리 트랙 ‘마음을 담다’



장성공공도서관은 갤러리 트랙에서 오는 30일까지 조영진 작가 초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마음을 담다’라는 주제로 마음에 위로와 희망을 주었던 글귀를 소재로 하여 ‘낮고 깊게’,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마음을 지키라’ 등의 캘리그래피 작품 18점을 전시한

다. 작가는 나의 마음에 위로를 해주고 새로운 희망을 주었던 글귀들을 나만의 감성으로 재탄생 시키면서 행복감을 느꼈다. 작품을 감상하는 여러분들도 한 줄 글귀를 통해 공감과 위로를 얻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조영진 작가는 남도서예문화대전 우수상, 순천시미술대전 캘리그래피부문 특별상 등 다수 수상하였으며 광양 갤러리 휴, 갤러리 연향 등 개인전 3회, 6.25전쟁 70주년기념 ‘평화를 담고 서다’ 특별전시 평화전차전, 캘리콘서트 정기회원전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현재는 한국디자인아트협회 순천지회장, 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정회원으로서 활동 중이다. 장성=김수권기자

장흥교육청, 학교폭력 관리자 및 담당교사 연수 실시



장흥교육지원청은 1일 관내 초·중·고 교감 및 담당교사 5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관리자 및 담당교사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2학기 시작과 함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 관리자와 담당교사의 현장 대응

관내 초·중·고 교감 및 담당교사 50명 대상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교폭력 발생시 사안 초기 접수를 담당하게 되는 담임교사, 사안 조사를 맡은 학교폭력 담당교사, 민원 처리를 지원하는 학교 관리자 등의 상담 능력을 강화하여 피해 학생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지원하며, 학부모들의 감정을 지지하여 학교폭력 사안이 확대되지 않고 관계회복 중심의 학교장 자체해결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학생생활담당교사 김OO은 “학교폭력은 모든 관련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고통을 안긴다.

초기 상담을 통해 상처받은 마음을 학교에서 보듬어 주고 교육적 조치를 통해 관련 학생 모두가 이전처럼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연수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김성호 장학교육장은 “최근 학교폭력 신고들을 보면 초기 대응이 잘못되어 심의위원회로 온 것이 대다수이다. 학교폭력 관련학생과 학부모의 상담방법 개선을 통해 관계회복 중심의 학교장 자체해결에 학교의 역할을 강화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전남교육청, 태풍 ‘힌남노’ 복상에 원격 수업·휴업 전환 권고...학교장 자율 결정

전남교육청은 태풍 힌남노가 복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태풍 대비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전남교육청은 단축수업, 원격수업 전환, 재량휴업 등을 실시해 학생 안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에 권고했다. 학사일정은 학교장의 자율로 결정하게 된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24시간 비상근무 체

제를 유지하면서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전남이 태풍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5~6일 학생 안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태풍은 5일부터 ‘매우강’의 세기로 전남 남해안으로 접근하여 내륙으로 복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재환기자

고흥교육청, 비폭력 대화로 학교폭력 예방

회복적 생활교육 통한, 학생들의 관계회복 및 학교폭력 예방

고흥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열린 회복적 생활교육이 학생과 교사들에게 좋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9월 2~3일에 고흥동초등학교에서 신청한 학급(3~6학년, 6개 학급)을 대상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에서 쉴 틈 없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 미처 돌아보지 못한 자신을 이해할 수 있었고 친구들과 서로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체험을 마친 6학년 이예솔 학생은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 친구들이 가진 생각을 이해할 수 있었고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 좋았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체험 학급 담임 정철은 교사는 “회복적 생활교육이 학생들의 반응으로 볼 때 바쁜 학교생활에 힐링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라며 후기를 전했다.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았지만 체계적으로 강사를 관리하여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를 학교에서 찾아 운영하



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고흥교육지원청에서 마련한 회복적 생활교육이 교직원, 학생, 학부모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더 많은 학교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회복적 생활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